

불교학 화두 '회통불교' ... 응용불교학 관심고조

한국불교학 어제와 오늘

1600여 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의 특징을 정체성 규명이라는 학문적 노력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100년을 헤아리게 된 한국불교학의 역사를 4세대로 나누어 세대별 대표 학자를 중심으로 일별해 보았다. 그 동안 한국불교학은 6만 3천여 건의 논저라는 연구성과를 축적했으며, 이제는 불교라는 종교와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 인식되어 온 지 있다면, 당연히 회통불교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회통불교란 서로 다른 교리나 사상을 갈등이나 대립 없이 하나로 엮어내는 이론으로,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원효스님만의 사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표현은 다르더라도 지눌스님의 정혜쌍수(定慧雙修), 의천스님의 교관병수(敎觀並修), 서산스님의 선교일치(禪敎一致) 등과 같이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선과 교, 정토와 진언간의 대립을 회통시킨 예는 많다.

이렇듯 회통불교는 관념적 담론이 아니라 1천 600여 년이라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 격 중단인 조계종 역시 선불교의 맥을 잇고 있지만, 선과 교를 겸수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은 "조계종의 선·교 겸수는 선(禪)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교(敎)를 향한 문을 닫지 않는, 회통적 선, 회통적 교"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회통에 있음을 강조했다."

禪과 敎 보완관계

또한 회통불교는 사찰이라는 신행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선문의 불상 안치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선(禪)을 수용했다지만, 실상사나 보림사와 같은 선문들은 화엄종 식으로 불상을 봉안하고 탑을 세웠다. 이는 중국 당나라 송나라 때의 선종 사찰이 법당만 건립하고 불상을 봉안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종법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이에 대해 "중생 제도라는 불교의 본원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체(體)와 용(用)이 절묘하게 결합한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권상로



◇이능화



◇김동화



◇조명기



◇교익진



◇김영태

회통불교라는 말은 최남선의 '조선불교-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위치'라는 논문에서 처음 사용됐다. 최남선은 이 논문에서 원효스님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한국불교 역사를 관통하는 사상으로 회통불교에 주목했다.

그런데 최근 학계 일각에서 "회통불교를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회통불교의 사상적 배경인 '화쟁'이 한국불교만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장구한 역사와 다양한 얼굴을 가진 한국불교를 '회통'이라는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봉춘교수(동국대)는 "회통불교에 대한 비판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긍정적 자기 인식을 위한 당연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치밀한 학문적 탐구로 회통불교론을 역사와 현실 앞에서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불교학의 역사도 이제 100여 년을 헤아리지만 한국불교의 정체성

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1천600여 년을 관통하는 '정체성'을 단언적으로 규정한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지한 학문적 탐색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불교학의 시작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맞물려 시작되었다. 초기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 불교 연구는 노골적으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왜곡과 폄하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는 자연히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독자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촉발시켰고, 차츰 깊이와 넓이를 더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불교논저 현황

100년간 6만3천여건 발표

1902년 발간된 학술 자료인 <국내사찰현행세칙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불교학 논문과 저술의 수는 총 6만3천769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단행본은 1만3천450건, 일반논문은 4만6천813건, 석·박사학위논문은 3천506건으로 집계됐다. 주제별로는 '교리'와 '역사·전기' 분야가 각각 1만3천939건, 1만5천10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학계가 사상과 교리 연구에 집중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물 연구에서도 원효, 지눌, 일연, 서산, 사명, 기화 등 특정 인물의 사상과 행적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어, 연구 범위의 확장도 심화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밖에 '불교어문학' 8천850건, '불교예술' 8천192건, '종파' 4천699건, '경전' 4천62건, '종교일반·비교종교' 3천886건, '인도·티베트' 1천783건, '불교다도' 1천249건, '불교풍수' 1천641건, '불교아동' 36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이철교(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씨의 색인본 전산 자료와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논저 목록 CD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01년에 발간된 학계 성과물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전산 상의 집계는 한계로 논문 발표 후 단행본으로 펴낸 경우나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동일한 논문에 의한 허수는 가려내지 못했다.

학위논문 3,506건



일반논문 46,813건

주제별 불교학 성과물		
1	교리	13,939건
2	경전	4,062건
3	역사·전기	15,104건
4	종파	4,699건
5	종교일반·비교종교	3,886건
6	불교예술	8,192건
7	불교어문학	8,850건
8	인도·티베트	1,783건
9	불교다도	1,249건
10	불교아동	364건
11	불교풍수	1,641건
총계		63,769건

'원효 화쟁사상' 연구주제로 가장 인기 권상로·이능화 '근대불교학' 기초다져 '한국불교전서' 1600년 불교사 집대성

1910년을 전후로 시작해서 21세기의 초입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의 시기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불교학의 자취를 인물 중심으로 일별해 본다. 언급되는 불교학자들은 한국불교학 연구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들이며 세대 구분은 임재경(기. 8·15광복에서 6·25이후,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고도 성장기, 90년에서 2000년까지)로 나뉘었다.

식민사관 극복노력

한국불교학을 태동시킨 1세대는 일제강점기에 학문을 연마한 학자들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우선 권상

로와 이능화를 꼽을 수 있다. 권상로는 한국불교사 전체의 윤곽과 역사적 전개를 처음으로 서술한 <조선불교사약사>를 펴냈다. '약사'라고는 하나 부록까지 포함하여 300쪽을 넘는 결코 작지 않은 책이다.

여러 종교의 교리를 불교와 비교한 <백교회통>이나 한국불교에 관한 사료를 집대성한 <조선불교통사>를 펴낸 이능화는 '근대 최고의 불교사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불교 종파사의 맥을 잡아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 논문인 '오교양종에 대하여'를 쓴 김영수, <석문의법>을 정리한 안진호 스님 등도 하나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교학의 기

초를 마련했다. 이 시기에서는 드물게 독일의 빌트볼름대에서 유학한 백성욱도 빼놓을 수 없다. 불교의 현대화에 노력한 그는 학위논문 '불교 순전철학'을 통해, 불교에 대한 서구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중국불교사>를 펴낸 장원규는 불교사 뿐만 아니라 경학·윤학·논학과 중국 13종의 종교 등에 업적을 남겼다.

한국불교학의 2세대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불교학자와 사학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일본식 학문 방법에 따라 주로 고승이나 중요한 경전을 연구 과제로 삼았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는 불교 입문서인 <불교학 개론>과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를 쓴 김동화와 조명기 등이 다. 김동화는 불교를 토대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연구해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를 없애는 데 노력했고, 조명기는 중국이나 일본불교와 대비해 한국불교를 연구했다. 한우근과 이기백 등은 각각 조선 및 신라 시대의 정책을 연구하여 불교와 현실 정치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황성기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5년

는 구사, 유식학과 불교 논리화인 인명화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법화경> 연구로 '비구·대처분쟁'을 이념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했던 홍정식은 한국불교학회를 창립하는 등 불교학 발전에 공적을 남겼다.

불교학의 여러 분야를 사실상 개척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3세대인데, 김영태와 고익진 등이 대표적인 학자다. 이능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불교사>를 펴낸 김영태는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불교의 신앙적 특성을 밝히는 데 힘을 쏟았는데, <삼국유사>를 토대로 신라인의 신심을 밝힌 연구 성과가 돋보인다. 고익진은 신라의 교학 연구를 비롯하여 불교문화학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사상사>, <한국천수불사의 연구>를 펴냈다.

불교연구 변화움직임

또한 <한국불교전서> 편찬실장의 소임을 맡아 8권의 전서를 발간했다. <원효사상>으로 집성된 이기영의 원효 연구도 이 시기 불교학의 우뚝한 성과물이다. 안계현은 고단사와 교리사를 유기적으로 연구, 한국 불교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불교 문화에 대한 연구의 물꼬를 튼 윤학스님은 <신라불교문화연구>을 썼고 서경수는 인도철학과 불교를 깊이 있게 연구해 <인도불교사>를 펴냈다.

90년대부터 불교는 불교학자들만의 연구 주제가 아닌 다른 학문 전공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연구 분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교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등의 전국 규모 교계학술단체에서 불교를 다룬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심리학이나 물리학 환경 관련 연구에도 불교와 접점을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의례의 현대적 계승에 노력하는 학자들도 주목에 값하는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용종

종 정 영 산 일 공
부 증 정 유 념 법 신

원본원부원장
원본원 위원
중앙종의회회장
중앙종의회부회장
중앙종의회의원

송 산
선명, 효계
성 관
천호, 인관
정광, 혜광, 선덕,
진연, চে명, চে정,
석천, 성욱, 보선, 혜민

승 정 원 장
규 정 원 장
포 교 원 장
문 화 원 장
교 육 원 장
중앙비구니회회장

보 인 신
평 성 정
관 관 봉
월 월 월

총 무 원 장
총 무 부 원 장
총 무 부 원 장
총 무 부 원 장
총 무 부 원 장
총 무 부 원 장
총 무 부 원 장
총 무 부 원 장

최 법 률
선 보 대 체 체 보
진 광 월 인 도 월

인천증무원장
충남증무원장
광주증무원장
전남증무원장
부산증무원장
경남증무원장

법 체 체 호 도 은
원 의 림 연 광 혜